

1910~20년대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와 인식*

이준영**
let_s_fun@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모집'을 통한 최초의 단체이주 조선인 |
| 2. 가라후토시대의 시기별 구분 | 3.3 조선인 기생의 이입 |
| 3. 1917년을 기점으로 한 조선인 '모집' | 4. 1920년대 가라후토 조선인 인식 |
| 3.1 가라후토의 노동자 부족 상황 | 5. 마치며 |

主題語: 가라후토(Karafuto), 사할린(Sakhalin), 도요하라(Toyohara), 유즈노사할린스크(Yuzhno Sakhalinsk), 가라후토일일신문(The Karafuto Nichi Nichi Shinbun)

1. 들어가며

사할린은 쿠릴열도와 함께 러시아의 사할린 주에 속하는 섬이다. 사할린이 일본령이 되었던 것은 1905년 러일전쟁 후 포츠머스조약 체결 이후 북위50도 이남의 남사할린을 넘겨받은 이후이며 일본의 패전 이후 1946년부터 러시아가 영유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현재 사할린은 러시아의 행정지역에 속한다.

한국에서 '사할린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1990년 한소수교 이후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2012년 2월에는 연인원 4,008명에 달하는 사할린한인이 영주 귀국하는 등에 따라 사할린한인의 동원실태 규명과 전후보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술성과로는 사할린한인의 영주귀국이 활발했던 시기와 맞물려 구술조사에 의한 적응과정이나 복지와 관련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¹⁾ 하지만 디아스포라 연구 중에서

* 본고는 BK21 플러스의 일환으로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글로벌사회의 갈등과 공공성의 인문학과 일본연구 특성화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1) 정하미(2013) 「사할린연구」의 전개와 '權太' 자료 - 인구조사와 가라후토청 경찰자료를 중심으로 『일본학보』94, p.249

는 남사할린 이주 한인과 북사할린 이주 한인을 구분하지 않거나 중앙아시아의 한인과 통틀어서 ‘고려인’으로 총칭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사할린한인의 이주사는 일본령의 남사할린과 러시아령의 북사할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주 루트와 정착 과정도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둔 디아스포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사할린과 남사할린이 일본의 패전 이후 러시아령이 됨에 따라 이곳에 잔류한 한인을 ‘고려인’이라고 총칭함으로써 중앙아시아 한인과 사할린한인을 구분 짓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기존의 ‘사할린연구’가 러시아 지역학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지면서 일본어 사료나 문헌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과 특히 남사할린이 일본령이었던 시기에 편찬된 일본어 문헌에 접근하거나 해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이어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연구가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정하미(2013)는 경찰기록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사할린 이주 조선인의 다양한 활동을 제시해주었으며²⁾, 이승희(2013)는 전통적인 조선관에 근거한 편견에 사로잡혀 가라후토의 치안당국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조선인의 이주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밝혔고³⁾, 이연식(2017)의 연구에서는 사할린 주역사기록보존소에 소장된 문서를 통해 한인의 통제와 관련해 화태청-경찰-기업 간의 연계성이 포착되었다고 하며 사할린 동원 및 거류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⁴⁾

한편, 영주귀국 대상자의 사할린 이주 시기는 대부분 1939년 이후로 제2차 세계대전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에 일제에 의해 사할린에 1세대가 강제 이주되었고, 이 중 상당수는 사할린 현지에서 이주한 1-2년 뒤에 태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⁵⁾ 이와 같이 영주귀국 대상자가 강제징용시기에 사할린으로 이주했다는 점에서 사할린한인연구도 이 시기 즉 1930년대 후반에서 1945년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전 시기 ‘모집’에 의한 사할린 이주 조선인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사할린한인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중에는 1930년대 이후에 생산된 경찰행정문서가 비교적 많으며 사할린 이주 조선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 사실이 집적된 자료인 만큼 사할린 이주 조선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2) 위와 같음.

3) 이승희(2013)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 치안당국의 인식」 『한일관계사연구』44, pp.161-191

4) 이연식(2017) 「화태청(樞太庁) 자료를 통해 본 일본제국의 사할린 한인 동원 실태 연구」 『일본사상』32, pp.151-188

5) 배수한(2010)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거주실태와 개선방향 : 부산 정관 신도시 이주자 대상으로」 『국제정치연구』13(2), p.289

본고에서는 근래에 활용하기 시작한 가라후토 경찰자료를 포함하여 그 동안 가라후토 연구에 활용이 미비했던 신문자료를 토대로 이른바 가라후토시대⁶⁾에 조선인이 처음 ‘모집’으로 집단 이주를 한 시기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가라후토일일신문(樺太日日新聞)』⁷⁾에서 보이는 가라후토 이주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 초기의 현상을 보다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고자 한다.

2. 가라후토시대의 시기별 구분

가라후토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이재혁(2011)은 자유이주기(1905~1937), 강제이주기(1937~1945)로 나누며 남사할린과 북사할린을 같은 성격의 이주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정희(1997)는 1910~1920년대, 1930년대와 그 이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1910~1920년대는 북사할린의 사례만으로 구분하였으며 1930년부터는 북사할린과 남사할린의 이주 사례가 구분되지 않아서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는 한계점이 있다. 김민영(2000)은 모집(1939년 9월~1942년 2월), 관알선 및 할당(1942년 2월~1944년 9월), 징용(1944년 9월~1945년 봄)으로 ‘강제연행’ 시기를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1939년부터의 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위와 같은 시기 구분은 기본적으로 조선인의 이주를 기반으로 두고 있으나 대체로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이 패전한 1945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1910년~1920년대의 시기는 북사할린과 남사할린의 구분을 간과하거나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드물게 1910년대를 다루는 경우는 북사할린 지역의 알렉산드로프스크(Alexandrovsk)의 이주 사례를 들고 있지만 정작 일본령이었던 남사할린 지역의 사례는 소개되지 않았다. 일본령이었던 남사할린의 인구 통계학적인 시대구분을 제시한 선행연구로 최근 <표1>과 같이 사할린 이주 조선인 인구를 행정문서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 1917년, 1923년, 1938년 세 차례에

6) 본고에서 가라후토시대는 포츠머스조약 이후 일본인 사할린 지역에 가라후토민정서 및 가라후토청을 설치하고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통치했던 시공간적 의미를 포함한다.

가라후토는 역사적인 의미로는 본래 사할린 전도를 의미하였고 따라서 남사할린과 북사할린을 각각 남가라후토와 북가라후토로 명칭을 구분하였다. 한편 가라후토시대에는 남사할린을 남가라후토와 가라후토로 혼용하다가 점차 가라후토라는 명칭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남사할린을 일본이 통치했던 시기를 지칭할 때 가라후토라 표기하며 선행연구 등의 소개에서는 원문 표기를 따른다.

7) 다카라베 구마지로(財部熊次郎)가 가라후토일일신문사(樺太日日新聞社)를 설립하고 『가라후토일일신문』을 창간. 가라후토청 광보 게재지로서 가라후토청의 공식 탑재 신문이었다. 본지는 가라후토 도내의 사회나 정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제언을 하는 등 가라후토 언론계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걸쳐 주목할 만한 인구 증가 추세를 제시하였고 그중 1920년대의 이동을 중심으로 고찰을 한 바 있다.

<표1>은 가라후토치일반(樺太庁治一斑)과 가라후토청통계서(樺太庁統計書)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제작된 것을 발췌한 것으로 여기에서 1906년부터 1916년까지 조선인 인구가 24-48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중 1910년 북사할린의 알렉산드르프스크에는 한 개의 한인촌락이 형성되어 가구가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연해주에서 오가는 조선인 말고도 이미 정주하고 있던 조선인이 존재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남사할린의 경우 체호프의 『사할린 섬』에 의하면 세묘노프라고 하는 러시아 상인 아래에서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일하고 있었고, 마우카에서는 한국인, 아이누인, 중국인으로 구성된 700명의 노동자가 어업에 종사했다고 하는데, 조선인에게 사할린은 가라후토시대 이전부터 해외노무(出稼ぎ)를 위한 지역성을 지니고 있었던 점을 엿볼 수 있다.⁸⁾

<표1> 사할린 거주 인구수 추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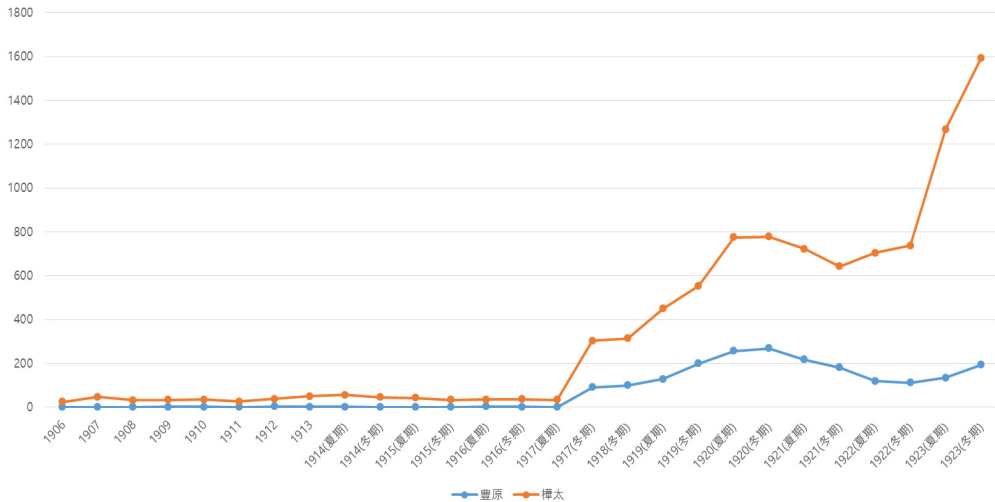
연 도	총인구	조선인 인구	조선인 남자	조선인 여자	일본인 인구	일본인 남자	일본인 여자	기 타
1906	12,361	24	17	7	10,806	7,175	3,631	1,531
1907	20,469	47	35	12	18,281	11,163	7,118	2,141
1908	26,393	31	27	4	24,107	13,692	10,415	2,255
1909	26,236	32	23	9	24,097	13,698	10,399	2,107
1910	31,017	33	29	4	28,688	16,446	12,242	2,296
1911	36,725	26	25	1	34,416	19,522	14,894	2,283
1912	42,138	34	34	0	39,811	22,691	17,120	2,293
1913	44,362	48	46	2	42,490	23,593	18,897	1,824
1914	57,206	45	40	5	54,939	31,151	23,788	2,222
1915	60,660	33	27	6	58,449	33,001	25,448	2,178
1916	66,280	35	33	2	63,990	36,056	27,934	2,255
1917	73,979	214	207	7	71,517	40,502	31,015	2,248
1918	79,795	344	338	6	77,185	43,767	33,418	2,266
1919	84,845	355	345	10	82,409	46,189	36,220	2,081
1920	91,136	510	489	21	88,747	49,840	38,907	1,879
1921	103,630	462	434	28	101,329	57,721	43,608	1,839
1922	120,222	625	563	62	117,782	68,747	49,035	1,815
1923	140,361	1,398	1,201	197	136,928	80,858	56,070	2,035
1924	152,668	1,369	1,122	247	149,281	86,382	62,899	2,018
1925	189,036	3,206	2,324	882	183,742	105,057	78,685	2,088

8)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저, 배대화 역(2013)『사할린 섬』동북아역사재단, p.301

9) 정하미(2013)「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일본학보』95, p.274에서 발췌·수정.

1926	203,573	3,574	2,641	933	197,965	113,590	84,375	2,034
1927	221,243	3,573	2,467	1,106	215,443	123,449	91,994	2,227
1928	240,502	4,300	2,939	1,361	233,935	130,479	103,456	2,267
1929	251,313	4,197	2,804	1,393	244,931	135,600	109,331	2,185
1930	284,930	5,359	3,703	1,656	277,279	155,006	122,273	2,292
1931	287,377	5,880	3,919	1,961	279,204	156,658	122,546	2,293
1932	293,172	4,787	3,215	1,572	286,163	159,928	126,235	2,222
1933	300,298	5,043	3,354	1,689	293,168	162,592	130,576	2,087
1934	313,130	5,878	3,825	2,053	304,997	170,188	134,809	2,255
1935	322,475	7,053	4,521	2,532	313,115	170,868	142,247	2,307
1936	321,765	6,604	4,231	2,373	312,926	169,270	143,656	2,235
1937	326,946	6,592	4,153	2,439	318,321	170,952	147,369	2,033
1938	339,357	7,625	4,803	2,822	329,743	177,117	152,626	1,989
1939	355,330	8,996	5,915	3,081	345,605	185,840	159,765	729
1940	398,838	16,056	11,661	4,395	382,057	209,461	172,596	725
1941	406,557	19,768	13,603	6,165	386,058	211,932	174,126	731

한편 1916년 35명이었던 조선인 인구가 1917년 214명으로 5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시점과 2배로 급증하여 1,000명 이상이 되었던 1923년을 포함한 1920년대를 주목하여 가라후토 전체와 도요하라의 조선인 인구를 하기(6월 말 조사)와 동기(12월 말 조사)로 나누어 세세하게 나타낸 그래프가 아래와 같다.



<그래프> 가라후토와 도요하라의 조선인 인구추이

1917년 도요하라의 가와카미탄산(豊原郡豊北村川上大字川上炭山字)에는 조선인이 3가구, 90명이 거주한다고 집계되고 있으며¹⁰⁾ 1917년 11월 30일자 『가라후토일일신문』에서는 가와카미탄산에 102명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¹¹⁾ 도요하라는 가라후토청이 설치된 행정 중심지이며 가와카미는 도요하라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미쓰이탄광회사가 운영하는 가와카미탄산이 있다. 가라후토시대에 조선인 노동자 단체가 기업의 ‘모집’을 통해 최초로 이주해온 곳이다. 기존에 소수의 조선인이 가라후토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광업보다는 벌목¹²⁾이나 어업¹³⁾에 위주로 종사하고 있었고 일본인 공동체와 그다지 접점이 없었다면, 이 단체 이주로 조선인 공동체를 이루었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점에서 일본인 공동체와 접점이 생긴 것이며 이는 ‘내지인’의 입장에서는 이질적인 풍경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1923년에는 하기와 동기에 걸쳐 연이어 인구가 급상승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923년의 조선인 이주는 앞서 서술한 정하미(2013)의 연구에서 행정문서를 토대로 조선인 이주 동기를 고찰한 바 있는데 이와 더불어 일본 ‘내지’의 일자리 부족과 가라후토에 노동력 부족이 맞물려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비슷한 시기 1925년에는 내무성에서 실업자 200명가량을 가라후토에 개간사업에 종사시키고자 이주시키려 했으며 한 명 당 200-400엔의 이주보조금을 국고로부터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할 정도였다.¹⁴⁾ 1926년에는 일본 내지의 과잉 인구의 이출 지역으로서 가라후토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홋카이도 이상의 인구 수용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가라후토의 인구 유입에 국가 차원에서 일조하도록 제안하기도 한다.¹⁵⁾

가라후토의 노동력 부족이 계기가 되어 앞선 1917년 조선인의 집단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주도한 미쓰이탄광회사의 입장에서 ‘시험적’¹⁶⁾이었다고 하며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으나 그 이후에도 조선인 노동자의 유입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조선인 노동자 이입에서 노동력 부족에 대해 효과를 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¹⁷⁾ 즉,

10) 權太亨(1918)『權太亨治一斑』第10回、p.70

11) 『權太日日新聞』(1917년 11월 30일)

12) 權太亨警察部(2011)『權太在留朝鮮人一斑』(在日朝鮮人史研究會編『在日朝鮮人史資料集』1、録蔭書房、p.430)

가라후토청 경찰부에 의하면 1915년 벌목을 하기 위해 홋카이도 및 ‘내지’에서 도요하라에 이주한 조선인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3) 1913년 조선에서 13명이, 1914년 홋카이도에서 10명의 조선인이 마오카(真岡)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였으나 1915년에는 모두 홋카이도로 이전한 바 있다.

14) 『權太日日新聞』(1925년 9월 10일)

15) 위와 같음, 1926년 8월 12일

16) 『權太日日新聞』의 1917년 9월 23일자 기사 중 가와카미에 의해 모집된 조선인은 “일본 고용주가 시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이에 피고용인 측도 마찬가지로 ‘시험적’으로 온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적어도 1917년부터 일본이 패전한 1945년까지 가라후토는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지역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라후토는 조선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17년이라는 시점은 조선인 노동자 집단 이주의 단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1917년을 ‘모집’을 통한 조선인의 첫 집단 이주 기점으로 삼아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 및 노동 환경을 살펴보고 당시 가라후토 조선인의 활동과 그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 1917년을 기점으로 한 조선인 ‘모집’

3.1 가라후토의 노동자 부족 상황

내지에서는 전쟁특수를 맞이하여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1917년을 기점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¹⁷⁾ 하지만 가라후토는 조선이나 대만과 같은 다른 식민지와 사정이 달랐다. 다른 외지의 경우에는 선주민이 다수 존재했지만 가라후토는 선주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구가 적었으며 이에 개척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 대해 『가라후토일일신문』에서는 노동력 공급 부족이라는 기사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본도에서 각종사업이 근년 이상할 정도 융성해진 결과 노동력 부족으로 공급이 불충분하여 사업가는 이 보충에 관하여 적잖이 곤란하고 있다. 금년은 특히 노동자가 필요한 토목업자는 한층 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노동자 공급 부족으로 관청의 토목건축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도내의 노동자 결핍은 장래 개발의 진보에 따라 더욱 심해질 것으로 각 대사업가는 도내에서만 노동력을 공급받길 기다리지 말고 도외에서 이입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지당하다. (『樺太日日新聞』「勞力供給不足」1917.7.24)

가라후토의 개척이 활발해지며 가라후토에서 영업하는 사업가는 도내의 인구만으로는 충분한 노동력을 수급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라후토 밖에서 노동력을 이입하는

17) 1906년 24명이었던 가라후토 조선인은 1945년 전후 약 25,000~3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18) 이승희(2013)「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 치안당국의 인식」『한일관계사연구』44, p.172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3.2. ‘모집’을 통한 최초의 단체이주 조선인

가라후토 뿐 아니라 내지에서도 노동력 부족 환경에 처해진 상황에 『가라후토일일신문』에서 가라후토 내의 노동력 부족을 경고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조선인 노동자가 오사카를 거쳐¹⁹⁾ 기타미마루(北見丸) 편으로 가라후토의 오도마리항(大泊港)에 입항한다.²⁰⁾ 이 조선인 노동자가 입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오쿠카와카미탄산(奥川上炭山)²¹⁾은 미쓰이광산이 경영하게 되고나서 대규모 채굴 계획이 세워져 채굴갱의 확장, 선탄장의 신설, 경변선의 개수 공사와 같이 일시에 제 공사에 착수하였다. (중략) 선탄장의 신설, 저탄장의 확장 등은 이미 완성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공사인 경변선은 공정이 늦어지며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모집 인부의 도망해고신청이 빈번히 이어지고 처음 4백 명이었던 인부가 현재는 반수도 되지 않는 150명 정도로 줄은 결과이다. 지금의 상황이 이어지면 눈이 내리기 전은커녕 내년으로 미루게 되더라도 준공이 의심스럽다. 이에 회사에서도 대공황이 일어났으며, 아무래도 이 원인은 인부의 모집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 모조록 제대로 된 인부를 고용해서 어떻게든 내년에 준공시켜야만 하는데 이는 청부자에게 맡겨서는 불안하므로 회사가 직접 인부 모집을 한 결과 이번 조선인의 인부 100여 명을 고용하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權太日日新聞』「奥川上炭坑工事」1917.9.10)

기존에 내지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가와카미탄산의 노동자는 400명이었는데 무단으로 도망을 가는 경우 해고 처리를 하였으며 결국에 150명 정도로 줄게 되었다. 이 도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본 기사에 따르면 청부업자를 통한 모집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기업(미쓰이광산)이 직접 조선인 노동자를 100명가량 모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는 석탄 운반에 쓰일 경변선 공사에 동원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당해 12월에는 그 공사가 완료되어 가와카미탄산에서 연락선까지의 선로가 운영되기에 이른다.

19) 『權太日日新聞』(1917년 8월 14일)

20) 『權太日日新聞』(1917년 9월 10일)

21) 오쿠카와카미탄산은 가와카미탄산(川上炭山)과 위치상 다르지 않으나 원문의 표기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오쿠카와카미탄산이라고 기술하였음. 또한 문헌에 따라 탄산(炭山)과 탄광(炭鉱) 등을 혼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문의 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술하였음.

원 안에 井가 그려진 문양이 들어간 겹옷을 걸치고 아래에는 여느 때와 같이 헐렁헐렁한 조선 하카마를 입은 이상한 한 패가 그날 탄산을 향해 대절한 기차를 타고 갔다. 이 집단의 모집에 의하여 경변선공사도 이제부터 순조로워 질 것이며 혹시 공사가 늦어져서 강철기가 되어도 연내에는 어떻게든 준공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음)

『가라후토일일신문』의 기사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오도마리항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미쓰이의 상호가 문양으로 들어간 시루시반텐(印半纏)을 입고 헐렁한 조선바지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조선의 의상과 일본어가 적힌 하카마를 입은 100여명의 집단이 이색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선인 노동자 모집에 대해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서도 미쓰이에 의해 가라후토 탄광에 100명의 조선인을 유송 중이라고 보도하며 “이 조선인 사용은 단순히 시험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성적이 양호하다면 금후 더욱 조선인 유입 사용은 증가함에 이를 것이다.”고 서술하며 이러한 조선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의의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 (1) 본국 산업계에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 (2) 가련한 신부(新附)의 백성에게 직업을 내주고 신세대의 공업적 지식을 숙련시킴으로써 본국은 이에 의해 금후 수 십 만의 공업적 신병졸을 얻는 것과 같으며
- (3) 그리고 조선인은 내지인과 비교하여 임금이 저렴하지만 그만큼 생산비가 경감되어 이에 생산품의 가격도 그만큼 저렴해짐으로써 소비자인 일반 사회도 이로 이익을 향수할 수 있게 된다.

(『読売新聞』「労力の輸入」1917.9.15)

이 시기 가라후토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우선 6, 70전 정도부터 지급”한다고 하며 나중에는 채굴량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본인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 광부만큼 작업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라고 하며 “적당히 교도한다면 훌륭하게 될 가망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²²⁾ 조선인 노동자가 가라후토에 이주하고 1개월 이후에는 “결립 없이 오히려 전기 내지 인부보다 현저히 종업능률이 높다.”²³⁾고 한다. 그리고 11월 말일 기준으로 “가와카미탄광에서 조선인 노동자는 102명으로 그 중 반수는 일본인 함바(飯場)에서

22) 『權太日日新聞』(1917년 9월 23일)

23) 위와 같음, 1917년 10월 19일

여기에서 ‘내지인인부’는 조선인 노동자가 가라후토에 이주한 이후에 9월에 모집되어 온 아키타에서 25명, 규슈에서 36명, 10월에 모집된 니가타 24명의 ‘내지인’을 말한다.

생활하여 점차 일본인에 감화되었고 제법 근면해졌다.”²⁴⁾고 하는 등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시험적’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조선인을 ‘교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일선융화’라고 하는 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용주의 ‘시험적’ 모집과 피고용주의 ‘시험적’ 이주는 각각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3.2 조선인 기생의 이입

1919년이 되면 1917년 가와카미탄산에 100명가량이었던 조선인 노동자가 200명가량으로 증가하게 된다. 『가라후토일일신문』에 따르면 이곳에 소재한 조선인 노동자 중에서 도요하라 나 오치아이(落合) 쪽으로 산을 내려와 료리아(料理屋)를 방문하는 등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옮길 것을 우려하여 ‘조선기생’²⁵⁾을 이주시킬 것이라고 한다. ‘조선기생’이 이주해올 계획은 1919년 2월 시점으로 가와카미탄산에서 채굴 인원을 확장하고자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하여 익월에 출발하도록 하는 절차에서 ‘기생’도 여러 명이 함께 이주해올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선기생’의 도입은 ‘지극히 묘안’이라고 하며 조선인 노동자의 작업 능률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⁶⁾

여기에서 특기하는 바는 조선인 노동자의 이주와 그 수의 증가에 따라 기업 주도로 ‘조선기생’이 이주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선인 노동자의 ‘모집’이 ‘시험적’인 것을 넘어 검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선인 노동자의 이탈이나 이직의 방지책으로 ‘조선기생’을 이입시켜 면밀하게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치안당국에서 조선인이 직접 료리아를 운영하는 사례로 1922년 북가라후토에서 가족과 함께 이주한 박달수라고 하는 인물로 오도마 리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잇따라 북가라후토, 홋카이도, 조선에서 건너와 운영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이 조선인 노동자 ‘모집’에 이어 조선인 ‘조선기생’이 가라후토에 이주하게 되었고 1920년대에 들어서는 조선인이 직접 영업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등 현상이 심화되어 치안당국에서 사회문제로 여기게 된다.²⁷⁾

24) 위와 같음, 1917년 11월 30일

25) 손정목(1996)은 기생의 개념을 ‘주석(酒席)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기예를 업으로 하는 여성’이라고 정의하지만 『가라후토일일신문』에서는 료리아에서 성매매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라후토청 경찰부가 말하는 예기나 작부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치안당국은 조선인 작부의 경우 “명의를 작부이지만 그 행위는 완전히 창기와 다름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26) 『權太日日新聞』(1919년 2월 6일)

27) 『가라후토일일신문』에서는 기생이라 표기하고 가라후토청 경찰부에서는 작부라 표기하고 있다.

4. 1920년대 가라후토 조선인 인식

러시아 내전 중 1920년 니콜라옴스크(尼港)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북부 사할린을 1925년까지 점령하여 남북 사할린 전역에 걸쳐 영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인이 조선이나 ‘내지’에서 이주해오는 경우 말고도 러시아 연해주나 북가라후토에서 이주해오는 조선인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인 정치 망명가들이 상호 원조 협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기부금으로 25가구의 조선인 마을을 건립하였다가 1920년 4월 일본이 북부 사할린을 점령하며 협회 지도자 일행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였다.²⁸⁾ 혹은 남가라후토의 조선인이 북부로 이동하여 1923년 시점에는 북가라후토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1,431명이었다고 한다.²⁹⁾ 1924년에도 북가라후토 및 홋카이도로부터 들어오는 자가 많았으며 동년 말은 1,827명에 달하여 1925년 중에는 북가라후토의 철병에 따라 남하하는 자 730명이 있었다. 그 외 연해주, 홋카이도에서 들어오는 자를 더하여 동년 말 인구는 3,533명에 달하였다. 1926년에는 일시적으로 다수 유입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동년 6월말 현재 수는 3,761명의 많은 수를 나타낸다.³⁰⁾

<표2>는 가라후토청 경찰부에서 조사한 조선인 인구수 증감 추이를 나타낸 것이고 <표3>은 <표2>를 토대로 증가율을 계산하여 나타냈다. 치안당국은 이러한 증가율이 크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원인 중 하나가 북가라후토에서 철병하고 나서 현저히 늘었으며 이들은 육로나 해로를 통해 들어와 산림 오지에서 생활하다가 기회를 보아 하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치안이 불안해지며 인구 급증으로 경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선인 이주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28) 이정희(1997)「러시아 사할린주 한인의 실태 연구」『영남정치학회보』7, pp.266-267

29) 정하미(2013)「사할린연구의 전개와 權太 자료」『일본학보』94, p.259

30) 在日朝鮮人史研究會編(2011)『在日朝鮮人史資料集』1、錄蔭書房、p.420

<표2> 조선인 증가표³¹⁾

연 도	호 수	인 구			전년증감
		남 성	여 성	합	
1905년 점유 당시	11	23	10	33	
1921년	68	444	23	467	434 증가
1922년	76	577	39	616	194 증가
1923년	117	1,257	207	1,464	848 증가
1924년	170	1,522	305	1,827	559 증가
1925년	380	2,660	873	3,533	1,706 증가
1926년	512	3,310	1,077	4,387	854 증가

* 본 표는 각 연도 12월 말 현재임.

<표3> 조선인 인구 증가율

연 도	인 구	전년증감	증가율 ³²⁾
1921년	467		
1922년	616	194 증가	31.9%
1923년	1,464	848 증가	137.7%
1924년	1,827	559 증가	38.2%
1925년	3,533	1,706 증가	93.4%
1926년	4,387	854 증가	24.2%

가라후토의 위치는 러시아와 북사할린을 통해 육로로 닿은 접경지이기 때문에 군사 및 교통상 가치가 있는 지역이며 ‘북문의 쇄약이라 일컬었다. 가라후토의 이러한 지정학적 특수성은 니콜라옙스크 사건과 일본의 북사할린 점령, 그리고 철병에 의해 치안 불안의 요소를 더욱 가중시켰으며 북사할린과 남사할린을 오가는 조선인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라후토의 조선인 인구 급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유에 따른 치안불안 요소에 대해서는 가라후토청 경찰부에서 발행한 『權太庁警務要覽』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중 주요한 내용을 발췌하자면 아래와 같다.

본도는 적화주의를 강령으로 하는 ‘소비에트’ 연방과 접양한 우리나라의 치안으로는 수용하지 않는 격화주의의 선전이 있다. (중략) 도민의 치안과 탁식의 진전을 기하기에는 더욱 경찰기관의

31) 위와 같음, p.424

32)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증치, 직원의 증가는 목하의 긴급사임으로써 충실히 하길 바란다.

(長澤秀(2006)『樞太庁警察部文書 戰前朝鮮人關係警察資料集』1卷、緑蔭書房、p.4)

러시아의 대외적 특히 일본에 대한 방책으로써 일본인에 대해 선전은 일본어로 해야만 함으로 특히 일본어를 잘하는 조선인 24명을 작년 6월 이후 연해주에서 선발하여 북가라후토에 보내어 제주일본인은 물론 조선인 및 중국인에 대해 선전에 임하게 하여 블라디보스토크선전학교(浦塩宣傳學校) 졸업생을 북가라후토에 파견하는 것과 같은 소비에트 연방의 주의(主義)와 목적 관철에 노력하는 그 준비가 실로 주도(周到)하다. (위와 같음, p.6)

러시아와 맞닿은 지역성에서 사상이 가라후토를 통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그 사례 중에는 러시아가 일본어를 잘하는 조선인을 북가라후토로 파견하여 사상 선전을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20년대에 북사할린과 남사할린을 오가는 조선인이 증가하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었을 것이다.³³⁾ 이러한 조선인의 입국 경로는 국경 육로에 의한 것으로 해로, 기선, 발동기, 그 외 가와사키부네(川崎船) 등 어선으로 연안 도처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이는 경찰 정원이 부족할 때이므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힌다.

한편으로는 조선인이 가라후토에 이주해오는 것에 대해 가라후토청 경찰부의 모순적인 입장이 보인다. 가라후토청 경찰부는 조선인이 가라후토에 이주하는 것에 대해 ‘내지’의 사회 문제 및 다른 산업 상의 문제 해결의 좋은 수단 제공의 장소로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탁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며, 조선에서의 사회문제 특히 내선융화 문제 해결의 주된 수단 제공 장소 또는 대만의 사회문제 특히 내지인 및 대만인 간의 융화 문제 해결의 주된 수단 제공의 장소로써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척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등 조선인 뿐 아닌 대만인의 이주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³⁴⁾ 또한 “조선인 또한 우리 동포 중 하나이므로 함부로 이 도래를 금지할 수 없다. 하물며 내선융화의 대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더욱 그러한 금지는 흑시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고 하며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앞선 장에서 『가라후토일일신문』이 보도하고 있었던 내용과 일맥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경찰의 현유 세력으로는 조선인의 증가는 환영할 것이 아니다.”, “조선인에 대해서도 내지인과 어떠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논리에 사로잡혀 조선인의 단체적 도래를

33) 이뿐 아니라 니콜라옙스쿠에 주재 중인 일본인 중에는 공산주의에 찬동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은 자본주의적 일본제정을 파괴해야 한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고 하는 등 그 심각성을 밝히고 있다.

34) 在日朝鮮人史研究會編(2011)『在日朝鮮人史資料集』1、録蔭書房、pp.397-398

인정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용이하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서술에서 보면 조선인의 이주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가라후토청 경찰부의 본심이라고 판단된다. 가라후토가 노동 이주지의 지역성을 지니며 조선인 이주자도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선인 이주자와 관련한 사회문제라 여기는 주된 요소 중 하나는 조선인 노동자 문제이다. 가라후토청 경찰부는 조선인에 대해 ‘나태’, ‘시의심(猜疑心)이 강함’, ‘유타(遊惰)’, ‘사행(射倖)을 선호’, ‘뇌동성(雷同性)’, ‘위생관념유치’, ‘무학’하다고 하며 저축을 하지 않고 금전을 낭비하며 쫓대 없이 ‘내지인’ 노동자와 다투며 의심이 많아 ‘내지인’ 노동자와의 임금 차별을 느낀다고 말한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점으로는 작부에 대한 것이다. 앞선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19년 조선 기생이 료리야의 작부 역할로 이주한 바 있다. 이에 이어 1922년 북가라후토에서 조선인이 이주해 와서 료리야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선인 작부도 급증하게 되었다.

1926년 6월 기준으로 조사한 조선인 일용 노동자 중에는 나무꾼이 408명, 유송부가 133명, 농부가 252명, 작부가 222명, 광부 171명이라고 하며 이중에서 “조선인 작부 수가 상당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³⁵⁾ 이는 1926년 조선인 여성 인구의 20%를 넘기는 수치이다. 게다가 시루토루(知取) 44명, 오도마리의 25명의 미허가자를 더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에 대하여 “요리점, 음식점과 같이 예기 작부를 무제한으로 허가하여 조선인 도래의 간접 원인을 이루는 것은 과연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해답을 용이하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며 조선인 작부는 다른 조선인이 이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조선인 노동자 이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³⁶⁾

앞선 가라후토청 경찰부의 기록에서 ‘나태’, ‘시의심(猜疑心)이 강함’, ‘유타(遊惰)’, ‘사행(射倖)을 선호’, ‘뇌동성(雷同性)’, ‘위생관념유치’, ‘무학’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조선인 인식이 드러났다. 또한 이동성이 강하여 사업소에서 이탈하기 쉽고 노동력으로써는 ‘내지인’보다 저울한 것은 물론 중국 쿨리(苦力)에 뒤진다고 한다.³⁷⁾ 이와 비교하여 조선에서 발행된 『每日申報』에서 가라후토 조선인 노동자의 사정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였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三)朝鮮人の就業能率 彼等労働者の을事實에照하여調査하면即左와如하니

(중략) 一日의勞働能力은内地人에比하여二分の一로브터七分假量을普通으로하고漸次業務에熟達

35) 위와 같음, p.420

36) 위와 같음, p.399

37) 위와 같음, p.421

하야는内地人에게遜色이無하니一箇月에賃金七八十圓의多額에至하며 (『每日申報』, 1920.8.11)

(五)食事衛生娛樂等待遇特히施○호는事項

朝鮮人各自의希望을陳述케하야共同飯場을設하고本人等의嗜好에任하야食事を執케하얏스며衛生은各室에監督者(朝鮮人)를配置하야一般의衛生事項을掌케하고其他各般의指導監督을為케하얏스며 (중략) 北海道로브터募集호는朝鮮人坑夫는炭鑛其他鑛山에서勞役호는經驗이有함으로서勞動能率이内地人보다優秀한者-多하나 (위와 같음, 1920.8.12)

『매일신보』에 의하면 가라후토 이주 조선인 노동자는 ‘내지인’보다 노동 효율이 50~70%라고 하며 점차 숙달되어 나중에는 ‘내지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내지’에서 이주해온 경우는 이미 노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지인’보다 노동 효율이 좋은 경우도 있다는 사례를 알려주고 있다. 이는 ‘모집’한 기업에 따라서는 업무량에 따라 차등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라후토청 경찰부가 앞서 조선인 노동자는 ‘내지인’보다 저율하다고 언급한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에 대해서도 1개월에 70~80엔으로 1개월을 30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2엔30센에서 2엔60센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는 계산인데 이는 『가라후토일일신문』에서 조사한 액수인 2엔50센(도요하라 기준), 2엔(오도마리 기준)과 비슷한 액수였다.³⁸⁾ 그리고 노동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조선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함바에서는 위생을 담당하는 조선인 감독자를 배치하여 관리했다는 점에서 가라후토청 경찰부가 인식한 ‘위생관념유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5. 마치며

이와 같이 1917년을 기점으로 1920년대까지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를 신문언론과 경찰문서를 통해 살펴보면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이용하지 않은 신문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경찰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던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업이 주도했던 1917년 조선인 이주 풍경과 정착 및 적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경찰자료는 조선인을 통제하는 주체로서 문서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새로운 관점에서 가라후토 조선인 이주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38) 『樺太日日新聞』(1923년 11월 27일)

기업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조선인 이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17년 미쓰이가 주도한 ‘모집’을 통해 도요하라 가와카미탄산으로 조선인 노동자가 이주하였고 당해 준공이 불투명했던 경변선을 완성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가와카미탄산에서 채굴된 석탄의 운송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의 이직이나 사업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쓰이는 ‘조선기생’을 조선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때 함께 이주시켰다. 이 ‘조선기생’은 료리야에서 종사하며 사실상 작부의 역할을 하였고 1920년대에는 조선인이 직접 료리야를 운영하면서 조선인 작부가 급증하였는데 당시 가라후토에 이주한 조선인 여성 인구의 20%를 웃도는 수였다. 가라후토청 경찰부는 조선인 작부가 증가되는 현상에 대해 다른 조선인이 이주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선인 노동자 이주 양상도 다양화·심화되었다.³⁹⁾ 일본이 북가라후토를 잠시 점령하면서 해로나 육로를 통해 다양한 수단으로 연해주나 북가라후토로부터 조선인이 이주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 수도 급증하였다. 당시인 1920년대 가라후토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은 1910년과 마찬가지로 이어졌으며 가라후토 내 기업은 노동자 수급을 위해 ‘쟁탈전’을 벌일 정도로 노동 시장이 과열되었다. 이에 가라후토를 ‘내선융화’의 땅으로 여기면서 조선인의 ‘내지’ 이주로 인한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전통적인 조선관을 들어 이주해온 조선인 노동자를 ‘교도’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다룬 신문자료와 경찰문서에 나타난 조선인 인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나타났다. 『가라후토일일신문』에서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일본인과 업무 능력을 비교했을 때 ‘내지인’보다 능률이 높다고 하거나 『매일신보』에서는 ‘내지인’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고 하는 것에 반해 경찰문서에서는 조선인에 대해 ‘나태’, ‘유타’ 등의 인식을 들며 ‘내지인’보다 저열하다고 하였다. 관보의 성격이 강한 『가라후토일일신문』에서는 가라후토를 척식하기 위한 인구 이입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를 홍보하는 기능을 했을 것이다. 한편 경찰문서를 생산한 가라후토청 경찰부는 경찰 정원의 부족에 의한 업무 과다와 급증하는 조선인 이주자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인의 이주를 회의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그리고 가라후토 소재 기업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과 ‘교도’를 통하여 꾸준히 채용했다는 점에 비해 가라후토청 경찰부는 치안의 이유를 들어 조선인 이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위와 같이 조선인 노동자 이입은 기업이 추구하는 노동력 수급에 필요하였으나 가라후토청 경찰부의 치안유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라후토 조선인을 본격적으로 통제 및 단속하게 되었고 1930년대에는 가라후토 조선인 인구의 증가폭이 적거나 줄어들기까지 이른다.

39) 마오카(真岡)에 이주한 조선인의 경우 1920년대 이전에는 조선과 홋카이도에서 이주했지만 1920년대에는 연해주에서도 이주해왔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도요하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라후토의 다른 다양한 지역에서의 조선인 이주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만 가라후토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전시체제와 가까운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1910년대의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조선인이 가라후토로 ‘모집’ 이주하고 그 ‘시험적’ 이주가 성공한 첫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가라후토 조선인 이주사의 단서를 발견할 가능성을 제시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사할린한인의 디아스포라 연구가 역사적 맥락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보완하고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뒷받침해줌으로써 그 일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문논문, 서적>

배수환(2010)「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거주실태와 개선방향 : 부산 정관 신도시 이주자 대상으로」『국제정치연구』13(2)
 손정목(1996)『일제강점기도시사회상연구』일지사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저, 배대화 역(2013)『사할린 섬』동북아역사재단
 이승희(2013)「식민지 시기 제일조선인에 대한 일본 치안당국의 인식」『한일관계사연구』44
 이연식(2017)「화태정(樞太亭) 자료를 통해 본 일본제국의 사할린 한인 동원 실태 연구」『일본사상』32
 이정희(1997)「러시아 사할린주 한인의 실태 연구」『영남정치학회보』7
 정하미(2013)「사할린연구의 전개와 ‘樞太’자료-연구조사와 가라후토청 경찰자료를 중심으로」『일본학보』94
 _____(2013)「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일본학보』95

<일문서적>

樞太亭(1918)『樞太亭治一斑』第10回
 小宮山昌雄(1917)『日本商業地理』第四有隣堂書店
 在日朝鮮人史研究會編(2011)『在日朝鮮人史資料集』1、錄蔭書房
 長澤秀(2006)『樞太亭警察部文書 戰前朝鮮人關係警察資料集』1卷、録蔭書房

<신문자료>

『大阪毎日新聞』
 『樞太日日新聞』
 『読売新聞』

논문투고일 : 2017년 12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2월 05일
 2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9일

<要旨>

1910~20년대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와 인식

이준영

기존의 가라후토 연구는 전후보상 연구나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패전까지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연구는 역사적 맥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정작 1930년대 이전의 가라후토 조선인 이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찰행정문서와 신문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인의 이주와 정착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조선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17년 조선인 노동자 단체가 기업에 의한 ‘모집’을 통해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가라후토에 이주하였으며 이들의 능률이 인정되어짐에 따라 조선인 이주가 심화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남북 사할린 전체를 점령하면서 조선인의 이주 목적이나 방식이 다양해졌고 치안당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가라후토는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모집’과 ‘교도’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를 불러들였다면 치안당국은 조선인이 ‘나태’, ‘시의심(猜疑心)이 강함’, ‘유타(遊惰)’, ‘사행(射幸)을 선호’, ‘뇌동성(雷同性)’, ‘위생관념유치’, ‘무학’ 등의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절하하였다는 점에서 입장 차이를 보인다.

Immigrate to Karafuto of Korean and its perception from 1910s to 1920s

Lee, Jun-Young

Most established Karafuto researches have been done mainly on postwar compensation or Diaspora. And these cover the period from 1930s to the postwar era.

Even though Diaspora research have to be based upon the historical contex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immigrate to Karafuto of Korean before 1930s.

Therefore, this thesis will examine immigration and settlement of Korean on documents of police administration and newspaper materials, and will consider the perception on Korean. Especially in 1917, Korean in labor group immigrated to Karafuto on ‘trial’ through ‘recruitment’ by enterprise. And immigrating of Korean became active because their work efficiency get recognition. From 1920s Due to Japan occupied the whole of Sakhalin, immigration purposes and methods of Korean were diversified. But the police authorities took a negative stance. Enterprises and the police authorities show position difference that Enterprises drew Korean labors through ‘recruitment’ and ‘instruction’ in the shortage of labor, whereas the police authorities devalued the labor by reason of ‘indolence’, ‘distrust’, ‘laziness’, ‘like gambling’, ‘indecision’, ‘poor sense of hygiene’, ‘ignorance’ and other reasons.